

시간 역전

“술이 덜 깬나?”

창 밖을 내다보고 있던 영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바깥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많이 기다렸어?”

영호는 고개를 돌렸다. 수희가 앞자리에 앉은 모습이 보였다. 수희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얼마 안 늦었네? 차가 막혀서.”

수희는 급하게 뛰어왔다고 말하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척했다. 그는 저쪽에서 느릿느릿 걸어오는 것을 봤다고 말하려다가 참았다.

“근데 아까 지진 일어나지 않았어?”

“갑자기 무슨 지진?”

영호가 대꾸하자 수희는 고개를 가웃했다.

“이상하네?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때였다. 영호는 다시 시간이 멈추는 느낌을 받았다. 순간이긴 하지만 수희의 모습이 정지상태로 보였다. 수희도 느낀 모양이었다.

“거 봐! 또 흔들렸지?”

“이건 지진이 아니야...”

“두번째 파동이군.”

모크는 탁자를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이봐, 드라크. 어떻게 생각해?”

“뭘?”

드라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반문했다.

“저 파동 말이야. 뭐 같아?”

“글쎄... 꼭 레이저 광선 같아. 빛보다 빠르다는 것만 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았다. 광선포를 쏘듯이 한쪽으로 쏘아져 간다는 것도 그렇고.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모르지. 한 번 맞아볼까?”

그 검은구멍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며칠 전 혜성이 충돌한 다음부터였다. 간간히 빛을 방출하는가 싶더니 오늘은 갑자기 광선을 내뿜는 것이다. 그것도 두번씩이나.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검은구멍 이론이 틀렸다는 의미였다. 물론 저것은 특이한 검은구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이 대다수였지만.

다시 광선 다발이 쏘아졌다.

“세번째.”

모크가 중얼거렸다. 드라크는 고개를 흔들었다.

“간격이 짧아졌어. 이러다가는 연속적으로 방출되겠는데.”

모크는 광선이 나아간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진 맞다니까!”

“정말 우길래? 아니라니깐!”

영호는 점점 더 화가 났다. 뛰어왔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이젠 아닌 걸 우기기까지 하다니.

“버스가 가다가 급정거했다고 해. 그럼 어떻게 되니?”

“언제 적 농담하니? 당연히 앞으로 달려나간 다음에 운전사한테 ‘나 불렀어요?’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바로 그거야.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튀어나가잖아.”

“근데 그게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잘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해봐. 그럼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구.”

“지금 시계 얘기하니? 시계가 멈추지 시간이 왜 멈추니?”

그때였다. 같은 현상이 다시 일어났다.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졌다. 딴 사람들도 모두 느낀 것이다. 영호는 손가락으로 잔을 가리켰다.

“이거 지금 흔들렸니?”

그들은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켰다.
 영호는 현기증을 느꼈다. 마치 시간이 뒤엉키는 것 같았다.
 시계 태엽이 감겼다 풀렸다 하는 느낌.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수리는 고개를 흔들었다. 영호는 비꼬듯이 말했다.
 “우길 걸 우겨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타키온 우주선이라도 만들어놓을 걸 그랬군.”

모크는 기지개를 폈다. 일곱개의 손이 얼굴을 온통 뒤덮었다. 모크는 손을 바꿔 잡으면서 몸을 풀었다.

“빛보다 빨리 달리는 우주선이라... 참, 가는 건 그렇다치고 돌아오는 게 문제군.”

“그걸 신경 안 쓰는 부류도 있나본데?”

“뭐라고?”

드라크의 말에 모크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우주선이었다.

“저거 타키온 우주선 맞아?”

“그런 것 같은데? 이론적인 구조와 거의 똑같은데?”

“어디 거야?”

“미메스 종족.”

드라크는 우주선 표면에 새겨진 표시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불가사리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저들은 어떻게 돌아올 생각이지?”

“글쎄...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순간 광선이 발사되었다. 그리고 우주선도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벗어나!”

그로 선장이 외쳤다. 잠시 후 엄청난 충격이 찾아왔다. 선원들의 몸이 붕 뜨더니 선체 구석에 가 처박혔다. 그로는 머리를 움켜쥐고 일어섰다.

“모두 다치지 않았나? 선체 파손 여부는?”

선원들은 끄끙대며 일어나 우주선을 점검했다.

“선체 표면이 거의 부서진 상태입니다. 초광속 속도에서 벗어날 때 받은 충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푸른색 행성이 눈 앞에 있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저 곳에 충돌했을 것이다.

“착륙할까요?”

“아니. 그 곳은 위험해. 곧 광선이 연속 발사될 테니까. 우선 저 위성에 착륙하기로 한다.”

그들은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켰다. 그리고 달 기지의 지구인들이 불가사리처럼 생긴 우주인의 출현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각종 관측 장비를 설치했다.

“저들이 이 행성 주민인가봐.”

그들은 달 기지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원시 종족이야. 다리가 넷밖에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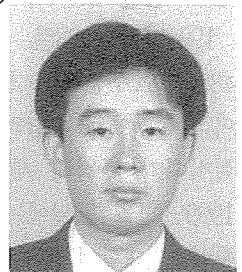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영호는 현기증을 느꼈다. 마치 시간이 뒤엉키는 것 같았다. 시계 태엽이 감겼다 풀렸다 하는 느낌.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연속 발사 상태. 시간 역전 현상 발생.”

그로 선장은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이론상 존재하던 시간 역전 공간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선원들을 집합시켰다. 그리고 한바탕 연설을 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 탐험에 나선 여러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오. 하지만 이제 이 먼 곳에 뼈를 묻을 필요가 없어졌소. 우린 저 행성에 착륙할 것이오. 그리고 아주 젊어진 뒤, 귀로에 오를 것이오. 청춘의 샘을 발견한 영웅이 되어서 말이오.”



이 한 음 <작가>